

16/02/28(주) 주일예배 / 제목 : 실망을 극복하는 비결 (출15:22~27) p.105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마리**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실망 극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인생에서 살다가 겪는 실망을 이기지 못하여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에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실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원치 않는 실망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 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혼을 했는데 데이트 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성품들이 나타나면 “속았구나. 이런 사람인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는건데” 라며 후회하며 실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없는 돈, 있는 돈 아끼지 않고 가르치고 보살펴 주었는데 결혼을 하더니 자기 마누라 밖에 모르는 것을 보고서 실망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잘되어서 용상에 앉을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랬는데 용상은커녕 눈칫밥 먹으며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럴 때에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실망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해준 일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방금 말한 경우처럼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확대하거나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그러하지를 알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판이 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조금만 형편이 나빠져도 서슴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그렇

습니다. 한 번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또 한 번은 물이 있었으나 못 먹을 정도로 써서 원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라’ 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란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에 실망하게 되어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실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론 /** 어떻게 하여야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1. 성공 뒤에 오는 실패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떤 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초자연적인 섭리로 홍해 바다를 땅바닥처럼 건넜으니 얼마나 감격했으며, 잡으러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으니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자보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물을 발견은 하였지만 먹지 못할 쓴 물이어서 또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리고 성을 통쾌하게 무너뜨리고 난 뒤에, 아이 성에서의 실패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어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성공으로 인하여 뿔뿔이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성공 뒤에 오는 실패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2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하나님이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시고자 힘든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망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지도자를 비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시키실려고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고 맡기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여야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1. 성공 뒤에 오는 실패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보다가도 막상 나쁜 것이 닥치면 좋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덕을 잊어버리기 쉽고, 회사 대표는 종업원의 수고를 잊어버리기 쉽고, 부부들은 배우자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히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어느 백만장자의 회계사가 이런 글을 남기고 자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년간 나는 격려하는 말을 결코 듣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싫증이 났다”

백만장자의 회계사가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으니까 삶에 염증을 느껴 결국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빠른 삶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못 보게 되고 당연히 여겨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혼내 주셨고,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걸어갔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일이 어디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백성들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까 모든 여인들도 따라 나오며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그런데 불과 3일밖에 안되었는데 물이 없다고, 또한 물이 있어도 쓰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 보세요. 3일 만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돌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앞으로의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야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현실 앞에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마라에서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이때 모세의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은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복하려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길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행동에 실망하였지만 저주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실망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실망했을 때 보통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동정하는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험담하는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근본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벰전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백성들의 원망으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한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더라면 그 실망을 결코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쓴 물이 달게 변하는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지만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1. 성공 뒤에 오는 실패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큰 고통 뒤에 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자 물샘 12개와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천국을 찾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통과한 자들에게 엘림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마라와 엘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1km정도 밖에 안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엘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라에서 멈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소망의 땅 엘림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림이 불과 11km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바로 인도할 수도 있었지만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자 시험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고자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망하게 되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라며 마음의 벽을 세우고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쓴 물을 달게 바꾸는데 사용한 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마치 나무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마라가 있다면 며칠 후에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엘림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라’와 같은 실망이 다가올 때 이것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라 앞에서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조금 후에 엘림을 준비하신 그곳까지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라로 인해 오는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통과한 자들에게

‘엘림’의 생명수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현실 앞에 놓인 실망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어떻게 하여야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1. 성공 뒤에 오는 실패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큰 고통 뒤에 오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